

서울

임시 전동대회 열려 '부스러기', 스쿼시 동아리 정식인준

결식아동돕기 '부스러기' 동아리와 스쿼시 동아리가 지난 14일(화) 열린 임시 전동대회(내외포자회의(진정대회))에서 경식 동아리로 인준 받았다.

두 동아리는 기관운 상태로 지난 6개 월간 활동한 후 이날 대표자회에 활동보고를 진행했으며,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률을 얻어 신규동아리로 인준됐다.

각과 학생회장 선출

김민정(동양·중국어 99)이 지난 15일(수) 열린 선거 개표결과 241명이 부표(60%) 기준에 이르는 220명의 투표율로 표결정지에 선출됐다. 개표 직후 김민정(99)은 "과 집행부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다. 함께 일한 학생들에게 항상 기쁨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은 △과 학생회 내부흡연 금지 △투명성 학생회 등 직선제에 저지지 않은 꽈次要 다시 약속한다. 전국 대학의 최신기요부와 노래까지 다수한 장르에 20곡으로 내건 박양은 "필요할 때 자리를 찾았으면 한다. 학생들에게 항상 기쁨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금) 열린 불교교육과 선거는 열어나온(99)이 제2표인 72명(70.6%) 중 70명(97.2%)이 찬성해 학생회장으로 선출됐다.

25일(토) 스칸디나비아어과

북구인의 밤(NORDENAFTON) 개최

스칸디나비아어과는 오는 25일(토) 농수 5시 대학원 104호에서 한서대학과 스칸디나비아어과 대사관의 후원으로 누엔이프론(NORDENAFTON)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스칸디나비아어과 국제 대사들과 현지 외국인, 현지 기업체 관계인, 등록 선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칸디나비아어과 내 연구부, 노래부, 춤과의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테마 기획

으로 북유럽의 영화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다. 이번 행사는 준비하고 있는 장성택(96)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우리 고향이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입학과, 인근지역 수험생 입시설명회 개최

서울대학교 인근지역 수험생 입시설명회는 25일(토) 2시 반과 12월 2일(일) 1시 반, 4시 반 세차례에 걸쳐온다. 최근 2개년간 무학관과 입학부를 다수 배출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흥미로운 상담, 일본 문화란 무학인'을 주제로 죠총회(일본어)교수의 강연, 동아리 공연과 입시설명회 순으로 진행된다. 입시설명회는 질의 및 응답 시간도 있다. 이를 위해 입학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공문과 포스터를 발송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에게도 안내장을 배포했다.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입학과 직원은 "수험생들이 외대에 대한 입시설명회를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행사이다"고 밝혔다.

지난 18일(토) 신방인의 밤 열려

'신방인의 밤' 행사는 지난 18일(토)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선배에게 친의를 듣는 행위를 통해 대학을 고려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매년 치러지는 것으로 올해에는 80여명이 참가했다. 예정 시작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시작된 이번 행사는 노래와 춤 등과의 공연으로 시작해 학생회장 당시자인 서현우와 함께 소개 순으로 진행했

으며 조별 게임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 김동연(87) 등들은 "참여 인원이 부족했다. 좀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장 정간영(99)군은 "사전 연락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출연 선배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하지만 행사는 내용이나 구성면에서 향상됐다"고 밝혔다.

사람

“예나 지금이나 수업시간에 진지한 모습들은 똑같아요”

우리학교 서반아이어과 59학번으로 올해 복학한 늦깍이 대학원 문대동(61세)씨를 만나



"내가 무슨 취재할 만한 사람이 되니... 이렇게 늦게 공부하는 게 오히려 편리하지마." 어색하게 웃으며 말문을 여는 문대동이는 우리대학 59학번으로, 현재 61세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서반아이어과 4학년에 재학중인 늦깍이 대학생이다. 문씨는 젊은 시절 학년 하위기를 차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하다가 다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잠시 한국에 머물렀고 있다.

"그 당시 학교 달 때만 해도 다른 어려웠어요. 나 역시 학교도 못 미치고 처음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발공장에 취직했었죠. 그 후에 독립해서 수입회사를 치리고 지금 19년째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요."라고 문씨는 그 시절을 회고한다.

"30년 동안 대학졸업장 못 받은 게 끝을 미룬 한국식 불편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라며 "나이에서 어느 정도 기분도 갖고 해서 대학원에 들어가 신설된부도 좀 해보고 싶고 이를 점수으로 배워 보고 싶은데, 허락장을 없이 험들더라고요"라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처음에는 믿을 바에 되어 나니까 잘 할 수 있을까? 너무 무모한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됐어요"라며 "지금은 많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반응까운 모습에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얼마간 한 교수가 자리를 만들어 주어 학생들을 미국 생활과 사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전이며 영어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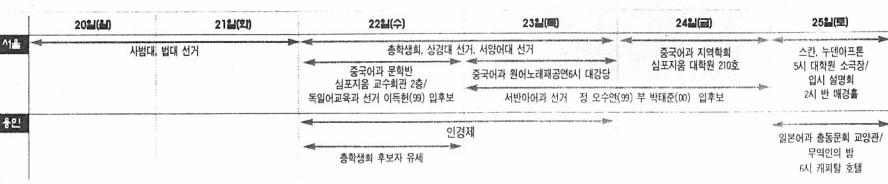
"외국에 한나라인은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해요. 무조건적으로 잘 해야지. 세계화 시대에 잘 맞추어 나가려면 영어는 필수고요"라며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

과 의식을 강화해 가져야 해요. 졸업장은 꼭 있어야 사회에 나가서도 몇 번이고 힘이 되지요"라고 당부했다.

"여기서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서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라 학기가 벌써 급너가는 게 많이 아쉽네요"라고 말하는 문씨의 얼굴에는 어려움이 가득하다.

앞으로 대학원 진학이라는 포부를 기진 늦깍이 대학원 문씨의 말을 들어 고민해보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hanmail.net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오는 27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진행된다. 오는 12월 22일(금)부터 내년 1월 11일(목)까지 진행되는 등계 계절학기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외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관련사항은 서울캠퍼스 교육과(96-4024 / 4861)로 문의하면 된다.

2001학년도 입시
도우미 모집 공고

입학과는 2001학년도 입시도우미를 오는 22일(수)까지 모집한다. 오는 27일(월)부터 내년 2월 16일(금)까지△방문자 입시도우미는 55명, 지원자는 14명에 그치며 현상 등을 내용으로 미팅하는 이번 행사는 학부생들이 대문문화사 어보기와 백선용 '대학서점'을 주제로 한다. 외대 대학원 신생들이 21시까지 중국 사회와 문화, '중국 현대'를 주제로 강연한다.

원어노래제 '니언很差'은 오는 23일(목)

2001 신입생 우수
입학 장학제도 개선

- 수혜인원 50명으로 늘어 -

'계열별 수능 상위 6~10%인자로서 각 단과대학 입학정원의 상위 2% 이내인 자'로 하는 정성장학제도의 한環구정 내용을 '계열별 수능 상위 6~10%인자로서 각 단과대학 입학정원의 상위 3% 이내인 자'로 변경했다.

이로써 잠정 수능수혜인원이 올해 총 33명이었던 것에 반해 내년에는 50명으로 하는 등 대상생 수를 대폭 늘렸다.

또한 정성장학제도는 본인의 원활

경우, 4년간 8학기 수숙비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관련 해설회 장학부임 이승근씨는 "올해 6% 이내인 신입생이 55명 지원, 최종합격자는 14명에 그치며 현상이 벌어졌다. 다른 대학의 장학제도가 우리학교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정성장학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정성장학제도 확대로 보다 많은 우수 학생들이 입학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22, 23일(목) 인문경상대

학생들의 하나됨을 위한 '인경제' 개최

인문·경상대 축제 '인경제'가 오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양일간 소문동에서 열린다. 특히 승리 위한 시간을 마련해 현재 진행중인 학교총리와 협상내용과 학자부정의 결과를 보고한다. 이와 관련해 경상대 학생회장 나주원(경상정보 95)군은 "서거로 인해 행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 학생회 미지막 사업으로 힘써 희선을 다했다'고 전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영어과 학생회장 문혁(96)군 당선

지난 15, 16일(목) 열린 영어과 학생회장선거 결과 문혁(96)군이 투표인원 203명 중 칭찬 188표(93%)를 얻어 학생회장으로 당선된다. 이전 선거에서 문은 이벤트상을 배포하고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세우는 목표로 활동장을 확장해 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특히 전원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일본어과 총동문회 열어

일본어과는 오는 25일(토) 이문관에서 총동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회 소개, 재학생 레크레이션, 세미나 때 했던 기념사, 원어연극, 반기문과 함께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김동희(96)군은

오는 25일(토) 무역인의 밤 행사 개최

무역학과는 오는 25일(토) 6시 캐피탈 호텔에서 무역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등문화 사문화회로 1학년들의 장기자랑과 재학생들의 연극, 노래, 풍드 등으로 출연해 교수, 재학

생들과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박재혁(96)군은 "비쁜데 따로 시간을 내 연습을 해준 무역인들에게 감사다"며 "비행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는 뜻깊은 행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5일(토) 철학과 한마당 개최

철학과는 오는 25일(토) 6시 캐피탈 호텔에서 철학과 축제로 6시 교육과학과 식당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하나되며 한마당'을 주제로 등문화들과 재학생이 유익한 토론과 함께 즐길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학생회장 김봉준(97)군은

"행사를 위해 과 학생들은 선배

수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체코어과 모교방문의 날 진행

체코어과 학생들은 지난 18일(토) 어문관 식당에서 모교방문의 날을 열었다.

선우민간의 정을 돋돌리고 해교 종친회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정기수(97)군은

"장기수는 아름다워 좋았습니다.

장기수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배움 티

구분	학 生			대 학 월 생	
	아침	점심A	저녁	백반	일품요리
오일					
월	봉나물국밥 (W1,400)	불고기밥 (W1,500)	소고기국밥 (W1,500)	불대추인장국 (W2,700)	부대찌개 (W2,700)
화	닭계장 (W1,400)	대구매운탕 (W1,400)	황나물국밥 (W1,200)	시금치계국 (W3,000)	비프스튜 (W3,000)
수	설렁탕 (W1,500)	한식계국국밥 (W1,500)	돈까스국밥 (W1,400)	한국국수국 (W2,300)	냉면장국찌개 (W2,500)
목	생선조림반찬 (W1,400)	비프카레와이스 (W1,400)	순두부찌개 (W1,300)	무해우육국 (W2,700)	닭은반 (W2,700)
금	네이버국찌개 (W1,300)	감자파리국밥 (W1,400)	차돌박국 (W1,400)	육개장국 (W2,300)	삼성찌개면 (W2,200)

구분	어 문 관			후 복 관		
	중식 1	중식 2	분식	조·중식	식식	탕
월	신짜내비빔밥 (W1,800)	갈비비빔밥 (W1,800)	된장나물국 (W1,200)	오색나물국 (W1,400)	남강나물국 (W1,400)	비빔국수국찌개 (W1,800)
화	오징어전국밥 (W1,800)	중간국밥 (W1,800)	감자수국국 (W1,200)	이어국	이어국국	341원
수	돈까스국밥 (W1,400)	비빔국밥 (W1,400)	비빔국밥 (W1,400)	비빔국밥	비빔국밥	341원
목	해파리국 (W1,400)	국수계국 (W1,800)	진자국수 (W1,200)	불국수국 (W1,400)	무해우국국 (W1,400)	비빔국수국찌개 (W1,800)
금	국수국국국국 (W1,400)	국수국국 (W1,800)	만두국 (W1,300)	감자국국 (W1,400)	육개장국국 (W1,400)	국수국국국국 (W1,800)

여성 국제전법 법정 일천황 전법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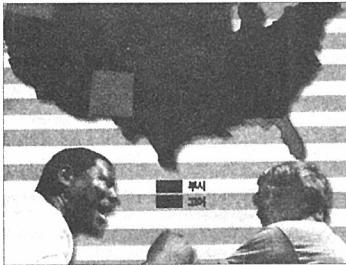
12월 8일(금)부터 12일(화)까지 도쿄에서 열리는 '여성 국제전법 법정'에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전법 법정에 피고로 기소될 것이다'라고 일본측 정부 단체인 경쟁(公證)과 여성족의 일본 네트워크가 지난 7월(금) 공식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윤경철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공동 대표는 이날 일본이 이번 법정에 제출할 기초장을 공식으로 작성했다. 며 남녀에서는 위안부 피해 여성 3명을 비롯한 220여명이, 북한에서는 여성 10명이 참석 예정이라고 전했다. 8개국의 위안부 생존 여성 70여명을 포함, 세계 각국에서 5백여명의 시민 단체와 일본인 100여명이 참석해 일본에서는 6백여명의 시민 등이 참석해 대규모로 진행될 '여성 국제전법 법정'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련한 일본군 간부와 정부관계자에 형사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공안부 전 부부장 사형선고

중국 국무부 외교부 전 부부장인 웨엔화(溫華)그룹 일부수사관에 적용되면서 침하여 거액의 뇌물을 어려워서 받은 것으로 밝혀져 다음 달 예상대로 열리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고 보도된다. 웨엔화그룹은 당·정 관리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정부부처와 세수 등을 통해 대량으로 벌어들이거나 세수 등으로 경매했던 고위직을 차지하는 정치적 무계를 걸친하면서 이 위기의 과정은 전환의 계기로 삼게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질서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다.

김민웅
<우리학회 정의와 출판, 딜러웨어 대학원 정치박사과정
수료, 현 미국 뉴저지 소재 길벗교회 목사>

미국 민주주의, 위기인가, 전환의 전조인가?



부시

알 고아와 조지 부시가 백악관의 접두 글에 흘러온 주의 재개표라는 사태까지 발생. 당선자 발표가 지연되고, 상호 밀접소송까지 이르게 된 상황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초반의 경향이다. 한편에서는 사내의 경기력을 우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의의 정착화 반응을 보장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직접선거의 결과가 '선거인단 제도'라는 18세기 영연방 국가 구성 초기의 산물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한편에서 기인하는 사례이다. 계단과 같은 선거인단 제도가 승계 독식 시스템에 의해, 이번과 같이 치열한 접두의 심상에서 극소수의 차이로 인해 무수한 표가 이루어진 대표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사표(死票)가 되고 만다는 점은 종래의 정치적 모순이 아님 수 없는 것이다.

실로 이 문제는 이제 '미국 정치제도 자체의 신뢰성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최종 심판자로서의 법정의 판단에 무게가 주어지면 양당 현상과 같을 듯 해결되겠지만 향후 선거 내내 미국은 이런 선거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놓고 고뇌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통성, 국가적 통합력, 정치제도의 신뢰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대선의 기세를 기울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플로리다주 개표결과가 발언이 되었다. 꼴 비자 카운티의 투표율이 문제를 비롯해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겹쳐 사태는 전국민의 공포감으로 이어졌다. 미국 현내 정치사상 이토록 양당이 서로간에 독립을 교묘한 적이 없을 정도로 미국사회의 내분의 진통을 겪었다.

그렇다면, 양측은 논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요체는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작업 개표의 결과를 드러내면서에 신경을 짚고 있다. 전국적으로 다수를 차지한 지지율을 든 것 이었다. 반면에 공화당은 이런 식으로 차기부 이양에 차지된 생기면 전통적인 미국 민주주의 제도에 충돌을 초래한다면, 먼저 국가이익을 고려한다고 맞서고 있다.

제가 수작업 자체에 신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준의 기계산출방식에 근거를 둔 선거결과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또는 구조적인 요인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한미로, 선거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국의 지지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선거인단 제도와 관련한 문제이다.

선거인단 제도는 무엇보다도 습자 독식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조례의 차이로도 차이를 차지하는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미국은 국민연합의 연방 제도를 시발로 하여 이루어진 '한중국(한중국)'으로서 미 대선은 각 주가 맡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그 주의 인구 대비로 설정된 선거인단이 대표하여 연방선에 참여하게 되는 형식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제도는 미국 각 주(州)의 상대적 독자성과 헌법 조항을 수락하지 않았던 연방제와 성립과정에서 요구된 18세기 영연방 국가 구성 초기의 산물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한편에서 기인하는 사례이다. 계단과 같은 선거인단 제도가 승계 독식 시스템에 의해, 이번과 같이 치열한 접두의 심상에서 극소수의 차이로 인해 무수한 표가 이루어진 대표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사표(死票)가 되고 만다는 점은 종래의 정치적 모순이 아님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미 고정된 수의 선거인단이라는 방식으로 중앙에 완충장치를 만들어 정치적 지지세의 영향력을 일정하게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아니라, 직접선 거를 통한 일반 민중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당시의 일부 실류계층의 정치적 태협의 결과로도 설명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천인 발언이 이루어질 경우, 자신들의 특권적 이해체제에 도전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라 할 지리으로 미 대선의 결과를 전제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사가 관심을 기울인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언은 선거인단 경쟁이 겪고 있는 플로리다 주 개표결과가 부시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이 꼴 비자 카운티의 투표율을

제를 거세게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다.

결국 1퍼센트의 표본 수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알 고어 후보의 득표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자, 재검표 주인이 여론의 힘을 염두에, 이어서 부시 후보진영은 수작업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미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개표결과만 수용하는 것을 촉구했고, 공화회 출신의 플로리다주 주무장관 카터린 해리스는 수작업 중단조치를 밟았다. 공화당 측은 알 고어 후보에게 유리할 가능성에 생길지 모를 수작업 자체를 어떻게든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수작업 재검표의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가 부기된 셈인데, 한가지 공화당으로서의 압점은

꼴 비자의 경우, "표본 수작업 결과 미리후보 결정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믿어 차이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기에 수작업 속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 사함들은 많은 헤리스 주무장관은 "그 와 같은 이유가 수작업 결과의 시행연장을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고로 밀고 나를 것을 밝혔다.

결국 이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수작업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있게 되었다. 수작업 자체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네트워크를 넘긴 결과를 공식집계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대선의 본수령이 된 플로리다 주 대법원의 판결, 즉 데드라인을 넘긴 수작업의 결과를 공식집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 아닌가가 정리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다.

이글을 쓰는 현재의 시점은 그 관행을 위한 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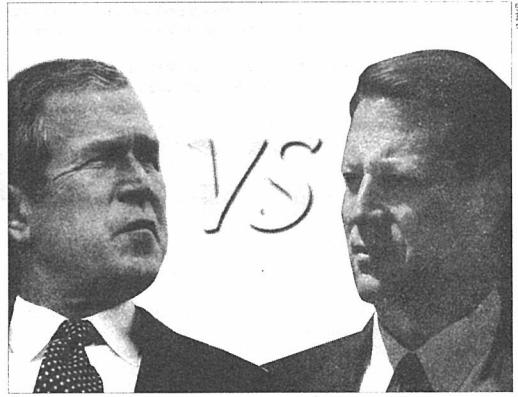
가 열리기 직전이며 이 관행은 고아와 부시 양측에 중대한 정치적 의미가 실린 사건이라고 하겠다.

이제 누구의 논리와 입장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법적 정당성을 확득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미국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줄 정치드라마라고 하겠다.

이것은 승자를 기리는 작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국주간에 논란을 뜨겁게 달구게 될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 미국 대선의 결과를 비롯하여 가지 제도적 모순으로 흥미를 찾고 있는 하지만,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각종 정치적 법리적 논리를 충동되면서 미국사회와의 합의기반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미국정치는 한 표 한 표가 행사는 정치적 무계를 걸친하면서 이 위기의 과정은 전환의 계기로 삼게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질서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다.

George W. Bush
Bill Clin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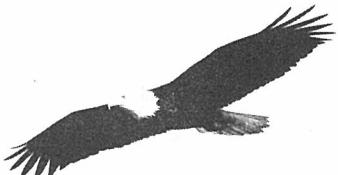
장찌민, 경제세계화 위원 경고

장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6일(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CE) 정상회의 참석한 20개국 지도자들에게 불균형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정표가 있어 세계화 이민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불안정한 자본과 외환 시장, 국제 유가 급등 또한 경제 성장에 역효과를 내는 추이' 요인이 있다며 세계의 경제 개발이 직면하고 있는 이번의 위험에 대한 통찰을 강조하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 지도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서방 국가들의 외국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북과 러시아 사이의 격차를 넓히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기도 했다.

보아라, 은행아!

은행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흔들리는 우리 금융과 경제를 위해 은행이 달라진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우리 금융의 내일을 생각하며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하나 은행이 누구보다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성장해 온 것처럼, 건강하게 바른길을 걸어온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은행의 모범으로 높이 날겠습니다.

■ 2000년 11월 현재 국내은행중 총수신고 4위, 전국 지점 284개 영업중



우리 금융의 내일, 그 하나를 위하여 –

 하나은행
www.hanaib.com

하나은행이 한국금융의 미래를 짊어질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2000.11.22~2000.11.28 ■ 문의전화: 02-2002-2102~5

■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hanaib.com 및 각 대학 취업정보 부서의 채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북문화관련 대학생 의식 조사



북한문화 전면 개방해야 한다… 63% 찬성

지난 해 전국대학신문기자(이하 전대기자) 문화분과에서는 남북문화관련 대학생 의식조사서는 리는 위와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를 전국 40개 대학 84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다. 당시 65.5%의 대학생들이 남북문화교류를 적극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북한문화개방 까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대기자 문화분과에서는 지난 해 설문조사에 이어 본간 학우회원들의 변화된 의식을 조사해 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10월 16일(월)부터 23일(월)까지 전국 7개 지역 57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편집자 주

이제는 세계 어느곳을 가도 그 나라 문화가 크게 낯설지 않아. 언수 혹은 어려운 목적으로 해외를 드나들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요즘 각 나라마다의 문화가 오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있으며 특히 제국주의의 열강 국가들로부터의 문화 압력으로 제국주의 문화가 풀 및 뜻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빅장을 걸고 유럽과 일본과 있던 일본 문화까지 오랜 눈란 끝에 전면 개방되어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 각국의 문화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50여년 동안 지속되온 본당의 강령은 세계 유일한 우리와의 한민족인 북한의 문화를 접할 기회 조차 박탈하고 서로간의 이질감과 부담심이라는 큰 비극을 초래했다. 그러나 지난 해 이를 노동자 축구대회와 평양농구대회를 시작으로 잇달아 전원 훈련 및 문화교류는 남, 북한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이해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미쳤다.

지난 1월 역사적인 남북회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 관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통해 본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모습과 평양교예단 등 특별한 진행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북한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서 역시 65%의 학생들이 '북한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그 중 61%의 대학생들이 정상화단 이후 북한의 문화를 접하면서 기준에 맞고 있던 의식이 변화가 있었다고 답해 정상화단으로 인해 북한 문화에 대한 나아가 북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문화에 대해 사람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매우 존스럽고 친부한 것만 같았는데 기분의 생각보다 훨씬 참

신하고 창조적이고 삶이 있는 '우리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우수하면서도 사람이 잘게 물어내나 더소 거부감이 든다'는 답변도 여러 명 있었다.

또한 북한문화를 접해본 느낌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성문화, 민족문화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예술적 감성이 뛰어난 것 같다'고 답했으나 '아직은 생소하다'는 답변도 여러 명 있었다. 그리고 '생소하고 낯설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지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얼마 전 남한에서 공연을 했던 '평양교예단'과 '평양예술선수단' 출단 그리고 '이산가족상봉' 면접을 보니 느꼈던 남과 북 사이에 비록 높은 장벽이 있지만 하나의 전통과 뿌리를 가진 한민족이기에 예민한 경계에서 우리나라오는 통증들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을 안겨 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국민들은 북한과 교류를 하면서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으며 아쉽게 대학생들의 교류는 복잡한 걸작과 함께 불편하며 실제로는 이미 전 전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체제 역시 불편한 바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화교류에 대한 물음에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기득권층에 의해 문화교류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교류의 폭이 확대되어 자주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해 민간교류가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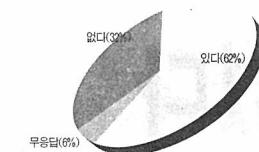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북한의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주교류를 추진해 왔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주교류 사업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이 90%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평양을 친절하게 만들고 대학생이 통일을 위해 나가는 모습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 63%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학생들은 간의 자주교류나 민간인들의 교류에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개정 혹은 완전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79%가 찬성했으며 그중 40%의 대학생들이 완전폐지에 주장을 했다.

텔레비전에서 대중기술가 '휘파람'을 부르고 걸어서 '냅깁니다' 노래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것을 보며 '평일 이 우리의 문화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문화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정상화단, 치관교회단, 조미화단 등 통일을 향한 음악인들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 속에서 '문화교류는 불신과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북한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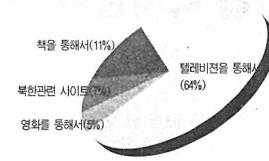
통일이 가장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남북한의 문화교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대기자문화분과 공동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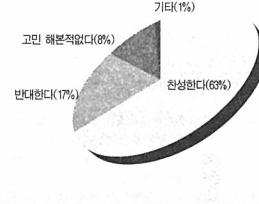
최근 북한문화(평양 교예단 등)가 예전에 비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북한의 영화나 책 등 북한의 문화를 접해보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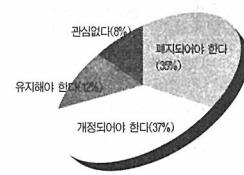
북한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통로로 접해보았는가?



북한문화에 대한 전면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북문화 교류를 겸연쩍으로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정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생활시평

'울트라 팬'에서 TV 지킴이로

어느 목요일 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즐긴 눈꺼풀을 떨어 올리며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아보다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회화' 운동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라고 말하는 한 언에 오리 프로그램 여성 진행자의 목소리에 풀린 눈이 번쩍 뜨였다.

상황이었는 최근 활동을 계기한 가수 서태지씨의 팬들이 서태지씨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편파·선정보도에 항의·언어 사이트를 통해 텔레비전들에게 광고를 걸어줄 것을 호소하고 직접적인 불매운동까지 벌여 결국에는 4개 개성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10여장 정도의 보고서까지 작성, 언론에 전해온 것과 함께 나온 상법상단을 일삼는 지침을 비판하고 있었다.

순간 나의 입에서 웬지 모기 기본을 끊은 웃음이 배어나왔다. 한편으로는 한 가수의 팬들이 힘들 무시 못할 대상이 되었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자본주의의 차원에서 광고를 만한 성과를 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앞서 언급한 방송 프로그램이 언예인 사생활에 대한 정성 보도와 저작적인 언행을 통으로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거나 시장단체가 팝인 희망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문제제기가 거듭돼 있던 방송들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에 서태지씨 팬들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편파보도에 반발해 이 운동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권리은 언론과 과정에 있어 외웠던 시장들은 단순히 이를 보는 순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정은 결국 수용당사자인 시청자가 변화시키야 한다'는 드러난 세리머니 보고서 내용을 들여보면 이들이 혼란을 막는 '이상을 잊은 철없는 팬클럽'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시작은 그려졌다. 할지라도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시청자들의 텔레비전 편집광장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스크립터처럼 사수투쟁이 처음에는 영화인들의 임직 기자회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가면서 '불평등한 한·북협정반대'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처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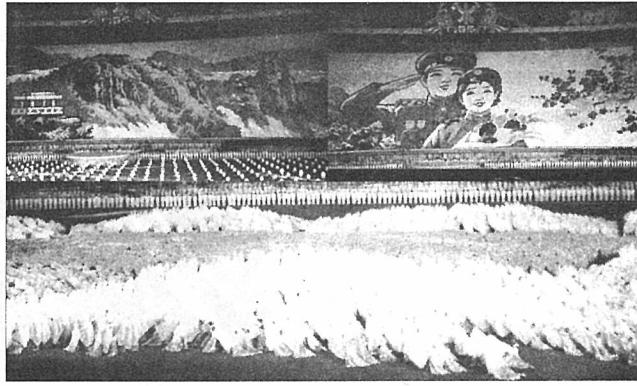
어쨌든 시청자와 문제제기 한 프로그램의 대화 광고나 칠판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좋은 선례로 넘겼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사건을 접하면서 나 자신 역시 학내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충고를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문화부장 oedae98@hanmail.net



내 한표 행사하기!

내 한표 행사하기!
출반장, 청소반장...
꼬깃꼬깃 종이를 접어
투표함에 넣었던 기억들.
내가 뽑은 친구가
우리반 반장이 되어 되었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점 내 손
으로 대표를 뽑는 흥미를 잃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봅니다.
처음 나에게 주어졌던
그 한 표의 표를 생각해봅니다.



한국문화



구호서 / 미음산책 / 7,500원



진중권 / 디우 / 8,000원

인생은 지나간다

서정적 이야기를 담아낸 소설들로 사랑받는 구호서 씨의 추억이 깊은 신간들이 나왔다. 이에 첫 지나간 삶의 여정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옛기억의 편년들을 모아 마음 한 편 따뜻해지는 흑백 사진과 함께 차분히 히 엮어내었다.

양동이, 양은 날비, 당치 큰 리디오, 디어얼식 전화기, 캐디란 놋쇠 주걱 등을...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친근했지만, 지금은 주위에서 거의 사라져 버린 생활 용품들이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가끔 우리를 과거라는 시간으로 데려온다. 주인공은 과거의 원형으로 살피고 있다.

한국인은 인생은 지나간다'도 지금은 듣기 복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축축한 과거의 원경들을 하나님 하나님 고집하는데 우리 앞에 현재화시킨다.

시칠리아의 암소- 한종의 부도록

'시칠리아의 암소'는 아웃사이더. 전방위 논객, 이 시리아 조커 등 색깔있는 병맛들을 담고 나오는 진중권씨가 그간 여러 지면에 기고,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엮은 시리즈 비판 에세이집이다.

그의 관심 영역은 무제한이다. 정치 이데올로기, 권력, 문화, 여성, 동성, 디자인 등 온갖 분야를 넘나들며 개인화된 식으로 세상을 읽는다. 특히 경제학과 정치학이 없는 막강한 인문학자의 현실을 재현하며 시이비 자유주의와 국가주의의 어구성을 날날이 개발된다.

한국인은 인생은 지나간다'도 지금은 듣기 복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축축한 과거의 원경들을 하나님 하나님 고집하는데 우리 앞에 현재화시킨다.

문화



문화가 이철수씨 개인전

지난 80년대 초, 민중작가로 묵민화작업을 시작했던 이철수씨는 충주 청진 마을에서 농사지으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구리빛 얼굴의 이씨가 지난 95년 '나쁜 풀의 노래' 전 이후 5년째 작품을 한 아름하고 도심 전시장에 내놓는다. 모두 134점이 출판되는 이번 개인전은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청주 등 대도시에서 동시에 열린다. 전시 주제는 '이렇게 풀은 남은' 전시작은 그간 시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어렵게 알게 짚어가며 이처럼 나름의 삶과 예술을 관찰한 것을 있다.

때: 11월 22일 ~ 12월 16일(토)
장소: 서울(학교교. 아트스페이스서울), 부산(공간화랑), 대구(예술마당술), 전주(전북학생종합회관), 청주(무신갤러리)

문화



http://www.wwwcap.co.kr

사이버 상에서의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 및 민원 처리를 통해 정보화 사회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를 예방하는 한국사이버법률센터의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사이버거래에서 유익점, 권리침해규율이 정리되었고, 신고나 고발등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이버법률센터는 사이버 관련 각종 신상이나 배제의 보도들이 그날 업데이트 된다. 하나님의 사이버 문화에 대해 보려면 수 있는 토론회도 마련되었다.

한편 사이버 문화에 대해 토론회 수 있는 토론회도 마련되었다.

학술 단신

유럽연합 연구소, '유럽문화와 예로 티시즘' 정기 세미나 개최

유럽연합(EU)연구소는 오는 22일(목) 양일간 '유럽문화의 예로티시즘' 이런 주제의 가을 정기 세미나를 연다. '이서에서 봄으로'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행사는 서울유럽연합과 지역에 흐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인 예로티시즘을 그림, 영화, 전시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첫날인 22일(목)에는 대학원 소국민에서 연구교장 원종근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상빈(예어) 박사의 '파울리니의 협회와 예로티시즘' 안민호(일월) 박사의 '가변시'·'아이즈 워터스'·'셋과 스페인'·'스페인'을 주제로 한ند대 강연(전축광화대)과 교수의 발 표가 이어진다.

또한 국제 예술 출판자리를 옮겨 진행되는 23일(목)에는 신정환(서반아이) 박사의 '바로크 예술과 예로티시즘' 김경숙(남일란드대) 교수의 '루벤스의 예술세계'·'류은(한국) 박사의 '나비에게 배이면까지'라는 주제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오는 30일(목), '언어·정보·문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 열려

'언어·문화·정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30일(목) 연구인구·정보인문학과 연구소·대학원인경정보학부·변천문화학과·공동주최로 열린다. 21세기 지식社会에서 맞아온 변화의 바람을 타고나온 변화의 힘과 함께 협력하는 학제적 연구를 모색하기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국제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반까지 장강 9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다.

'나비에게 배이면까지' 언어·문화·인지과학·정보인문학과 언어·인문학의 주제 아래 우리학교 이사장(한철호)·재학박(안현) 교수·서강대 프랑크 밀린(Frank Miller) 교수 등 총 12명의 발표자가 참여, 큰 규모의 학술발표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표회 이후에는 변천문화학회 창립총회와 대강당에서의 기념연회도 준비되어 있다.

김운용 IOC 위원 초청 특강

김운용 IOC 위원이 '스디니 월립피 공동인장 배경과 남북한 스포츠·경기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연다.

오는 22일(수) 오후 3시 월립피아워터 국제학종 학생구단에서 열리는데 이 강연은 날로 늘어나는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대한 전망을 모색해보자 마련됐다.

문의 월립피아워터 교무처 : 031-330-4023

스칸디나비아어과 학술대회 개최

스칸디나비아어과가 '북극의 밤' 행사를 함께 세 번째 학술대회를 연다.

오는 25일(토) 오후 1시 40분부터 5시 10분까지 서울배움터 시장각교육원 2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념연설의 이어짐, 사회과학의 두 가지 분야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어문학 분야에서는 손동호(영어)·정양정(엘싱카대학) 교수가 발표를, 김상열(스칸디나비아어)·우윤식(부산외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노동당 학생 그룹 '대우지동차 구조조정' 토론회

"대우차, 공기업화 통한 회생정책 필요하다"

전경적인 부도처리 이후 우리사회에 큰 짐을 안겨주고 있는 대우지동차는 현재 일반적인 구조조정 처리 문제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밖에도 지금 52개 부설 기업의 회출로 인해 공식 발표로 2만 7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7일(금) 서울배움터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부자노동자, 구조조정' 대안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 대우지동차 문제에 대해 공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노동당 학생그룹은 이미 성명서를 통해 공기업화를 반대, 대우지동차를 공기업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들은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부도처리되면 중소기업의 혼례부도 또한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결국 비중이 적은 기업만 사업에서 빠져나와 미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부가 정부로 사이에 서로 간접적인 차별을 우려나며, 경우에 구조조정이 되는 곳은 결국 노동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기조에 따라 이날 토론회도 진행되었는데 '시기·노동장, 정부·체관단 등 4가 협의체를 일단 구성해 공직자금을 투입해 공기업화 하는 것은 대우지동차 문제의 끝이 아닙니다'는 내용의 발제가 끝난 후 자유롭게 발언·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공기업화'란 주제에 대한 대체적인 문제제기에는 '과연 재벌이나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여 헤쳤는가?'와 '경제위기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않은가?'는 지점들이 나왔다.

이에 전자기·경우·정부로 사이에 서로 간접적인 차별을 우려나며, 경우에 구조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그는 직접 볼 수 없는 그 글로 드러내며 믿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더 큰 반가움을 안겨준다.

이 책은 우리나라나 분단된 조국의 남북 땅을 밟을 수 없는 개인사 속에 담긴 민족통일에 대한 어려움이 이야기를 수놓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신회담을 비단하고 떠올린 상념들을 새내리간 것이다. 또한 송교수는 '지구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구회의 의미문화 검증'이란 주제에서 지구회의 철학, 정치경제, 사회학 관련 논문 세 편을 담고 이어 독일통일을 들여놓고 그는 '세계사회'의 정치적 모델을 다음 세가지로 제시한다.

한국대학이 입법부처럼 운영하는 '세계사회'에 대한 철학적인 견해가 면접감에서부터 그의 논의에 시작된다. '나라·민족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형식이 가능하다'라는 의문을 던져놓고 그는 '세계사회'의 정치적 모델을

다음 세가지로 제시한다.

신 한번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대표 김재현(상경·무역 89)씨는, "불행기에 부도 위에 있는 기업을 살리지 못한다면 실태인 양선과 소비 축소로 더 큰 물의를 물고 있다. 구조조정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피하는 체제를 꾸며야 한다"라며 현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나무 빨라, 나무 빨라… "리고, (회)

0…유난히 변별력 없어진 수능시험 및에 이어 한 번도 풀어놓고 있던 비중을 두게 된다는 이번 대학입시.

아들딸 '좋은 대학 보내기'에 할인이 된 우리의 열매 아름다워! 시장당 1등신민원 채리 피워서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분개한 숙청 '상류대상' 크로나자자, '학벌제' 운운하더니 나 죽은 뒤 묘비에 '대체'이라고 세우면서 않는 게 다 행아군"

(공)



학술부

0
학

“지구화 시대 최대 화두는 통일입니다”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미망에도 아직도 이별의 장막에 걸려 3년째 국토의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재독 철학자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없다' 역서는 끝났는가? 그리고 발표되는 책마다 한글 논문에 신선한 자국어 역할을 했던 송두율·독일 핸스 더 대학 교수씨가 비단 그다. 직접 볼 수 없는 그 글로 드러내며 믿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더 큰 반가움을 안겨준다.

이 책은 우리나라나 분단된 조국의 남북 땅을 밟을 수 없는 개인사 속에 담긴 민족통일에 대한 어려움이 이야기를 수놓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신회담을 비단하고 떠올린 상념들을 새내리간 것이다. 또한 송교수는 '지구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구회의 의미문화 검증'이란 주제에서 지구회의 철학, 정치경제, 사회학 관련 논문 세 편을 담고 이어 독일통일을 들여놓고 그는 '세계사회'의 정치적 모델을 소개했다.

한국대학이 입법부처럼 운영하는 '세계사회'에 대한 철학적인 견해가 면접감에서부터 그의 논의에 시작된다. '나라·민족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형식이 가능하다'라는 의문을 던져놓고 그는 '세계사회'의 정치적 모델을

다음 세가지로 제시한다.

결산한 유럽에서나 통할 얘기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책에서 '지구화시대의 동일문제'에 대해 탄생한 이론적 비탕 위에서 담을 풀어놓고 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한 남북은 지구화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 다르다. 남쪽은 '세계화'로 북쪽은 '일본화'로 점령대의 시장을 드러냈지만, 그것은 공존할 수 없는 탐험제재가 아니다.

송교수는 최근에는 곧은 늘 경제에 있다. '세계사회'나 '구조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자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남북은 물론 세계에서도 그의 단은 명료하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민족은 영원한 철학'이며 그것은 언제가는 반드시 세계사회와 빛을 맞이하게 마련된다.

'민족'과 똑같은 무게로 그가 화두로 잡은 것은 '평일'이다. 지구화시대에 통일은 필요 한가 하는 물음에도 그의 단은 명료하다.

통일민족주의를 이루지 못한 채 탈민족국가로 경제성을 지구화 논의와 연결시켜 끝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전·현실도피를 노린다면 그것은 불과하다고 폐기될 뿐이다.

여기엔 좀 더 자세한 견해가 덧붙인다. '남북 이후 고려해야'는 (남북간) 대결구조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실천이나 과학기술 도전·정보 산업이나 지식산업에 의존해 지구화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은 이미 냉전체제를

0…임미전 여성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가 있었다. 남녀개발 시장경과 많은 기관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았고 작은 문제제기나 함께 공유, 대우지동차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적인 모범을 비비를 수 있는 기회였다.

비단 올라 전 부도처리에 사회적 고통을 불러오고 있는 사건만은 토론회는 시뭇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작성이 한 달간 진행되는 대중화 아울 그루 예로부터도 또 다른 일정으로 실업과 소비 축소로 더 큰 물의를 물고 있다. 구조조정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피하는 체제를 꾸며야 한다"

라며 현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나무 빨라, 나무 빨라… "리고,

(회)

0…임미전 여성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가 있었다. 남녀개발 시장경과 많은 기관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았고 작은 문제제기나 함께 공유, 대우지동차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적인 모범을 비비를 수 있는 기회였다.

이에 우리 크로나자를 잘 '비정규직 고용문제, 각종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고작 하는 일이 일어나는 수준으로 조사해보면…'

여성 특별위원회 경찰 특별하네..."

(공)

0…때는 11월 말, 변함없는 학생회선거 칠을 맞았지만 후보동자들 사이에서 남녀 운동에 수긍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했다는 데…

이에 우리 크로나자를 잘 '비정규직 고용문제, 각종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고작 하는 일이 일어나는 수준으로 조사해보면…'

여성 특별위원회 경찰 특별하네..."

(공)

여성 '특별' 위원회

학술부

• '자기 표현 훈련, 나를 제대로 표현하는 훈련'이 매주 금요일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진행됩니다. 12월 8일까지 주~목 계속 됩니다. 그리고 적성검진은 30일(목) 2시 30분에 열린 예정입니다. 미리 예약하세요.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이 문 벽

• 13th speech contest가 27일(월)로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문의는 011-9112-7827로 연락주세요. 구내전화는 4413입니다.

〈영어회화동아리〉

• 3089-6603입니다.
〈자감을 애하게 찾고 있는 이〉

• 도서관 3층에서 디스켓을 분실했습니다. 분홍색에 '입시자기'라고 써있습니다. 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놓아뒀으면 합니다.

연락처는 011-9907-9404입니다. 꼭 둘러주세요.

〈디스켓 잊어버린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강의(문제집)'를 끝냈습니다. 얼마전에 구입한 완전해입니다. 2010년 2월에는 판권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제 이름은 김형래이고 연락처는 010-262-6489입니다.

〈백과는 이〉

• '농민법

대학교 고행적 선거사례

안동대, 고행선거 학생총회 성사로 극복

계속되는 학생회 선거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학교당국이나 이전 총학생회의 부정행위로 인해 선거를 재시작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이에 본보에는 최근 불기자고 있는 안동대 계열대학의 상황을 취재해보았다.

편집자주

"앞은 논리로 선거를 제지하려했던 총학생회의 음모를 학생총회로 막아낼 수 있어 서 다행이다"는 조만이(안동대 98)장은 이번 2001년 안동대 총학생회 선거 부후보로 했다. 하지만 입후보자는 과정부터 계속된 후보등록 폭기 압력을 받아야만 했다.

후보등록을 제출한 중앙선관위위원회의 이유는 조망과 함께 정후보로 입후보한 환경학군이 '성적차별로 실형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환경학군은 올해 안동대 동아리 연합회장을 수행하면서 한동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8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 400여명의 수강생들에 끌어들였다. 하지만 환경군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청구한 상태이며 현재는 무죄신청에 해당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받은 법률문서에서 의혹만 선거시행세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신관위가 계속해서 후보등록을 제거하자 황·신·선·문등본들은 △비민주적 총학생회 탄핵 △선거관리위원회 제구성 △학생회장 개정 등을 결의하는 학생총회를 소집. 전체 학생의 1/4 이상인 75명이 참여해 총회를 성사시켰다.



이에 대해 조양은, "단체별로는 총학생회가 학생총회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선거를 진행해 못한 순번이다. 그 이유는 뿌리깊은 10%의 지지로 총학측 후보를 당선시켰지만 전 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다시 선거날짜를 잡는 등 학내 여론이 좋아서 잘 쓰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을 드러냈다.

학교당국은 또래 처음에는 "총학생회 절차에 따르자"는 입장이었으나 학생총회 성사 등 학내여론이 들끓자 곧 입장장을 선화했다.

비슷한 예는 계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안동대는 학생들의 여론전으로 선거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지만 계명대는 그렇지 않았다. 학생회학을 제외한 순번에 선거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이를 이유로 계명대를 드러냈다.

학교당국은 또래 처음에는 "총학생회 절차에 따르자"는 입장이었으나 학생총회 성사 등 학내여론이 들끓자 곧 입장장을 선화했다.

비슷한 예는 계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안동대는 학생들의 여론전으로 선거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지만 계명대는 그렇지 않았다. 학생회학을 제외한 순번에 선거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이를 이유로 계명대를 드러냈다.

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지만 계명대는 그렇지 않았다. 학생회학을 제외한 순번에 선거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이를 이유로 계명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조양은, "단체별로는 총학생회가 학생총회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선거를 진행해 못한 순번이다. 그 이유는 뿌리깊은 10%의 지지로 총학측 후보를 당선시켰지만 전 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다시 선거날짜를 잡는 등 학내 여론이 좋아서 잘 쓰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을 드러냈다.

학교당국은 또래 처음에는 "총학생회 절차에 따르자"는 입장이었으나 학생총회 성사 등 학내여론이 들끓자 곧 입장장을 선화했다.

비슷한 예는 계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안동대는 학생들의 여론전으로 선거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지만 계명대는 그렇지 않았다. 학생회학을 제외한 순번에 선거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이를 이유로 계명대를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 9월 28일에는 신임회 총장이 직

제에도 없는 명예총장 직을 부여받은 부친 신

부산·울산 지역 양민학살 현장을 가다

동산에 흘뿌려진 외면당한 800여명의 원혼



1950년 7월에서 9월까지 부산청원소에 수감되었던 5천여명의 정치수, 보도연맹관계자들은 이유없는 죽음을 당했다.

거제역 뒤편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험한 산을 넘나들 유난히 물증한 숲이 나타난다. 거제역과 청묘사 사이, 서면이 바로 지적인 도심 한 가운데 작은 동산.

이곳이 바로 부산지역 양민학살 800여 구

을에서 끌려와 지금의 돌레소방당(당시 경찰서 2층)에 가두어져 매일 트럭으로 실려나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유족들은 어디서 아랑곳하지 않고 살해되었던지도 모른 채 가슴만 태우다, 4·19이후에야 비로소 양민학살 진상규명의 바탕이 됨으로써 대체로 수색에 나서 부산 시내 곳곳에서 유족들을 발견해 냈다. 그 유해 800여 구를 모아 합동봉립을 만든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지만 1961년 5·16사건 박정희정권은 이를 모두 반역자로 낙인, 군인들은 물론 무임에서 유해를 파악 화장시키거나 부인봉사를 지원했다. 이트마한 통산 6회 발생 50여회로 미련되어야만 무덤은 차운을 감하고 요산 김정현 선생이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비석은 산신이 조각나서 절갈에 뿌려진지 오래다.

그 옆에 있는 흥이 바로 보도연맹 학살자 250여구의 시신이 빌려온 자리였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끙' 맞는다며 부리부리 내쫓는 관리인 턱에 금세 발길을 돌려야 했다.

태식 전 총장에게 활동비 목록은 1억 2천여 원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나 법정에 서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침묵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 선거

또한 순탄치 않다. 학교당국이 대리후보를 세

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개

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자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음악평 - 서태지 '울트라맨이야'

서태지, 깊이에 중점두는 진보음악인

1. 하드코어 서태지를 지지한다

대중음악에서 점진의 징후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경계성을 기반으로 노출된다. 첫째, 창작자 스스로 장르를 강조하는 음악가. 이들은 새로운 음악을 발명하는 '소위' 전재이다.

둘째, 창작자가 주제적으로 기존 장르들의 문법을 선별하고 새롭게 재단·내면화한 후 음악적 의지를 실현하는 뮤지션. 이들은 개별 음악의 깊이에 몰두하는 진보선수이다.

셋째, 대중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그 자체로 충족하는 아버지들이다. 서태지는 첫째 부류로 과학적인 틀에 부두이다.

진보 서태지는 새 작품을 위해 하드코어 문법을 태웠고 자신의 음악적 역량과 경로의 형식을 교차연접해서 새로운 '하드코어' 서태지를 완성했다. 하드코어를 내비방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해설을 강조한 서태지는 이래, 기타리스트가 되어 봐극했다. 6곡의 보컬 넘버를 전개해 나타나는 거친 사운드와 깊이는 정상 보다 두음성이 낮게 조율된 기타의 하드웨어적 핵심이기보다 산만한 음의 입자들을 통솔하는 서태지의 기타기에 대한 깊은 인식의 소프트웨어적 증거이다. 콘트리파이올린들이 그 자체로 출현하고 동원적인 사운드를 연출했다면 서태지의 드론은 과정되는 음들의 한계선을 명확히 꽂고 있는 정체된 질서를 확보하고 있다. 이 6곡들은 모두 크게 2개의 기타리프로로 구성되어 있다. 꼭 미다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를 견지하는 이 텍스트들은 이미 서태지가 장상급 기타리스트의 반열에 올라버렸음을 일증한다. (당크)의 기타리스트는 스래쉬 메

틀리카(1집~4집)를 경유한 타이트한 유클리드 비트의 어택을 사고하며 폭 키트 미드를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것이다. 탐모엘로(레이저아이제스미친)가 탑미하고 열렬히 지지했던 16 비트 리듬을 불과 두세개 음으로 간략히 바꾼(BOUNCE)의 해리지(오렌지)·하모니스(HARMONICS) 음을 리프 조립에 쉽게 배치하는 <울트라맨이야>의 연주는 일상기반이라는 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다. 닉터리코 91의 첫 앨범, 최고의 테크니션 집단인 노바소닉의 신보에도 이토록 최소한의 물언이 직선적인 해비파와 리듬의 그루브감, 세련된 톤 감각을 중시하고 있지만 같은 틀에 걸친 기타리스트 서태지는 세련된 투나 바운스의 극장을 오른 기타주로 결코 낯설지 않은 친구와 카트리스를 제공하고 있다. 꼭 음악의 본질과 가치를 일렉기타의 방법론에 의해 정립을 국내 대중음악 지향도에서 최초로 윤-하드코어 서태지로 완성했다. 하드코어를 내비방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해설을 강조한 서태지는 이래, 기타리스트가 되어 봐극했다.

2. 대중음악의 텍스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음악의 3요소들은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말로다리 부르는 가락, 코드로다리 부르는 화음, 리듬로다리 부르는 단장이 그것이다. 실제 우리가 듣는 대중음악에서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 가거나 불리는 글만 남는 셈이다. 세 가지로 요소들이 작거나 사용자 모두에게 작품의 원형적 텍스트인 것이다. 대중들이 작품을 접하면서 이 텍스트를 개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종합적 인식을 누리는 반면, 작가들이 이것들을 분해해서 사고하고 창작 단계에서 문제된 경로로 물질화의 의미를 부여한다.

대중음악 작곡의 경우 개인이나 따라 편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가사를 작성하고 거기에 멜로디를 붙인다(혹은 역순 수도 있다). 또는 편성된 악보로 꾸며 테마가 되면 간단한 리프(RIFF)를 만들고 힙시드의 단초를 발굴하기도 한다(혹은 아비스트의 경우가 많다). 이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대중음악의 소스이며 혼신 텍스트이다. 텍스트가 되는 텍스트를 떠나면 거기에 다양한 음악적 시고가 개입한다. 소위 편곡이라 불리는 단계이다. 전반적인 박자와 빠르기, 회음의 배치 등 각각은 자신의 악기를 도구로서 해석의 원형적 텍스트와 웨시 텍스트를 현실화시킨다. 이 지침에서 장르의 미학이 적극 활용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방송문을 '선택'하는 것이다(선택의 문제에 관련해서 볼 때 서태지의 신호와 콘과 키플리즈킷의 음악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본질을 통하는 편협한 시각이다). 직접 표절을 하지 않고 이상 하드코어의 징르적 코드 즉 7현 기타의 해비한 저음을 사용으로 서태지가 활용했다 해서 현재 그 징률의 정점에 선 이들과 단선적으로 비교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몬과 키플리즈킷 등도 하드코어라는 장르의 어원이 되는 케이스노우파(FaITH NO MORE)나 7현 기타를 사용한 스파이버이의 영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어려구나 없을 힘으로 맞대드릴 수도 있다. 특경의 징률을 '선택'한다는 협의가 작품의 본질을 왜곡하는 상황은 보기에 딱한 일이다(?)!

작곡의 음악적 양감이 형식문법을 통과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음악적 의지를 관찰한다. 작곡의 양감과 양식이 예술적으로 맞물리는 지점은 대중음악의 또 하나의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세 가지 텍스트들은 모두 작곡의 음악소스와 형식, 즉 예술의 본질에서 형식과 내용을 이루어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대중들이 어디에 상기기자치를 두는 내용이 형식을 배반할 수는 없고 형식이 내용을 전복할 수

도 없다. 다만 형식과 내용의 우열을 떠나 대중들이 어디에 상기기자치를 두느냐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양자의 상호 결합에서 음악성을 발휘하는 작업도 의미가 있다. 문제는 대중음악의 진정한 수용기자치가 이 텍스트들에 대한 진지한 탐사이며, 우리가 음악적 미학성을 강제할 대상이 이 텍스트들이라는 사실이다.

3. 저도권 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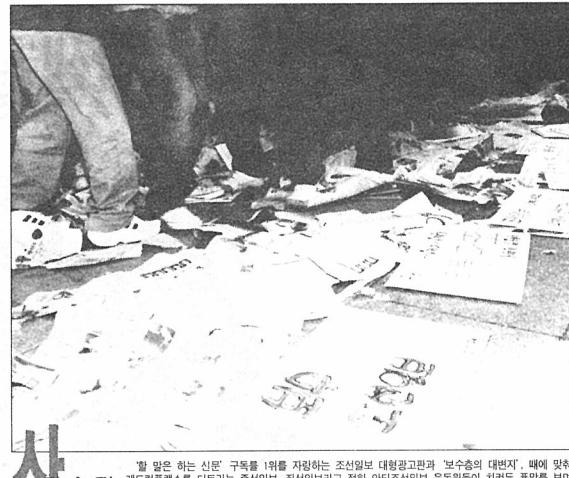
대중들을 만난하게 보는 제도권의 시선과 달리 수용자들은 음악적 수용을 선별하고 우위를 분별할 줄 아는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아니다. 대중이 형식적 저의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전술은 오히려 소지가 있다. 말을 바꾸자, 피아고리스가 소리(주수소)의 비례관계에서 음(音)의 제공하고 있다. 꼭 음악의 본질과 가치를 일렉기타의 방법론에 의해 정립을 국내 대중음악 지향도에서 최초로 윤-하드코어 서태지로 완성했다. 하드코어를 내비방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해설을 강조한 서태지는 이래, 기타리스트가 되어 봐극했다).

우리가 가장 경쾌한 느낌다니는 8비트리듬이 우리의 발걸음, 심장박동의 규칙적 수칙(진동수)을 확산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악 자체가 인간의 감상과 생물학적 이치를 반영하고 있는 인간성의 또 다른 해석이며 이것이 음악적 저의식의 이면이다.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음악을 쳐다보며 자신을 성장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번엔 음악 비평의 효율은 무엇인가. 창작자들이 좋아하는 추상적 음악 기호들을 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언어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대중들은 이를 대상으로 계획(계획)이 담긴 텍스트(가사를 놓고 음악의 가치, 즉 제도권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제도권은 이러한 음악평론에 응시하는가. 제도권 텍스트들은 그 자체의 음악적 윈도를 향하기보다 사회의 내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단대의 문화적 기쁨종이를 통과한다. 그러나 창작주체를 떠난 텍스트가 되는 대중음악의 소스이며 혼신 텍스트이다. 향기로운 향수와 함께 향수를 뿐만 아니라 창작자에게 편안한 시각이다. 직접 표절을 하지 않고 이상 하드코어의 징률적 코드 즉 7현 기타의 해비한 저음을 사용으로 서태지가 활용했다 해서 현재 그 징률의 정점에 선 이들과 단선적으로 비교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몬과 키플리즈킷 등도 하드코어라는 장르의 어원이 되는 케이스노우파(FaITH NO MORE)나 7현 기타를 사용한 스파이버이의 영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어려구나 없을 힘으로 맞대드릴 수도 있다. 특경의 징률을 '선택'한다는 협의가 작품의 본질을 왜곡하는 상황은 보기에 딱한 일이다(?)!

작곡의 음악적 양감이 형식문법을 통과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음악적 의지를 관찰한다. 작곡의 양감과 양식이 예술적으로 맞물리는 지점은 대중음악의 또 하나의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세 가지 텍스트들은 모두 작곡의 음악소스와 형식, 즉 예술의 본질에서 형식과 내용을 이루어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대중들이 어디에 상기기자치를 두는 내용이 형식을 배반할 수는 없고 형식이 내용을 전복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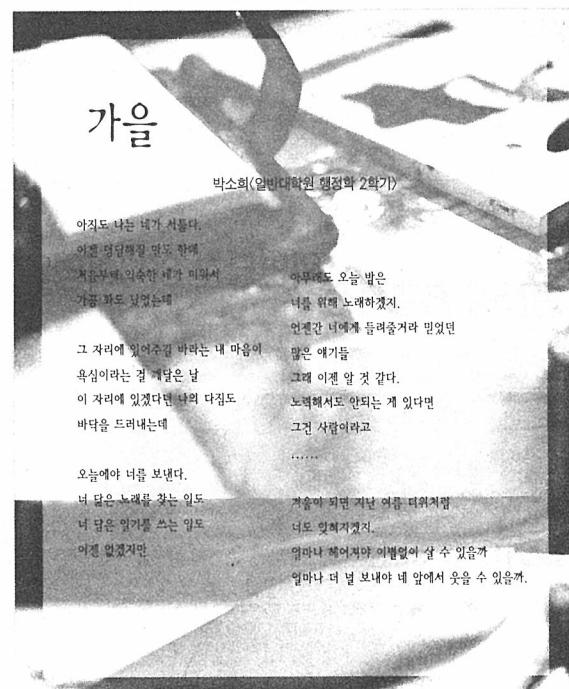
정경철
(법·법학)



사
장
수
필

'할 말은 하는 신문' 구독 1위를 자랑하는 조선일보 대형광고판과 '보수층의 대변자', 때에 맞춰 레드캡풀스틱을 터트리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보리 인티조선일보 운동원들이 차거든 뜯말을 보며 이누스의 얼굴을 떠올린다. 신문을 신니게 밟으며 조선일보 모든 내용도 밟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은 부당함에 맞설 줄 아는 젊은 대학신문기자들이다. - 조선일보 반대집회에서 -

사진부



박소희/일반대학원 행정학 2학기)

아직도 나는 네가 서둘다,
여전히 영당해질 애도 학제
제작부터 이수학과 미아에서
기쁨과 두드러졌다는데
그리고 오늘 밤은
나를 위해 노래하겠다.
언제간 너에게 데려줄지라 믿었던
그 자리에 있어주길 바라는 내 마음이
많은 얘기들
우심이라는 걸 깨닫을 날
이 자리에 있었던 나의 다짐도
노력해서도 안되는 게 있다면
바닥을 드러내는데
그전 사람이라고

오늘은 너를 보내다.
너 닮은 노래를 찾는 일도
너 닮은 일기를 쓰는 일도
여전히 알겠지만
얼마나 해어져야 여행길에 살 수 있음까
얼마나 더 멀 보내야 네 앞에서 웃을 수 있음까.

내 마음의 보물함이 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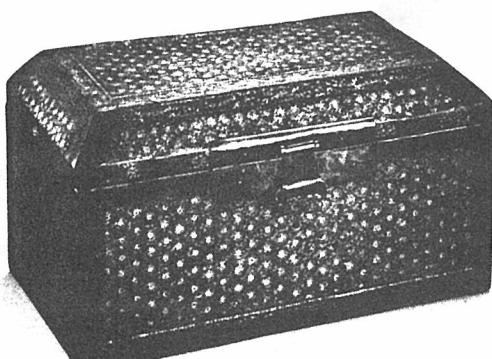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를 꼭꼭 담아두며 살아갑니다.

그 담아둔 이야기를, 살아가며 웃고 웃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십시오.

내 마음의 보물함을 활짝 열고…



나전국화당초모 경험
고려시대, 13세기, 길이 47.2cm, 영국대영박물관소장

· 문학상: 시(3편이상) · 소설 · 수필 · 회곡 · 비평 등

· 화술상: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등

· 마감: 2000년 12월 31일

· 문의: 서울 02) 961-4152, 4466

용인 031) 330-4112

· 음악상: 심사용 · 보관용 2부씩 제출

· 상금은 추후공고